

## 2023년 5월 1주(5/8-5/12) 가족공동체 나눔 교안

### 사무엘상 16:1-13 하나님 눈으로 자녀 바라보기

#### 1. 말씀요약

‘세대(generation)’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로 세대를 **‘도르’**라고 합니다. **도르는 ‘쌓여 있는 더미’**입니다. 세대라는 단어가 가지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대는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과거 세대가 쌓아 놓은 결과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의 결과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식(자손)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일은 정말,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 목표와 방향에서 나온 결과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해지며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 세대는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문은 그 가문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문에만 흐르는 성격과 기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육체의 질병까지도 연결됩니다.

2021년 5월에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한국을 비롯해 17개 선진국 성인 1만 9천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택한 것은 ‘가족(family)’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물질적 풍요(material well-being)으로 꼽았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정의 소중함, 가치를 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족보다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갖고 싶은 물건,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교회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물리적 규모와 교인 수는 성장했지만 기독교 복음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미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 추구, 목표, 삶의 방식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의 겉모습을 보고 ‘과연 한 나라의 왕이 될만한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당시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책망하십니다.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나는 마음으로 본다(7절).” 사람은 늘 눈으로만 봅니다. **그 눈은 자기 눈도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 준 눈입니다. 물질과 허영의 눈, 외모와 화려함만 쫓는 눈, 남보다 잘해야 된다는 눈입니다.** 이 눈으로 이새는 7명의 멋진 아들을 소개했고 사무엘은 전부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님은 전부 “NO!” 하셨습니다.

“이들이 전부입니까? 남은 아들은 없습니까?”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름도 부르기 싫은 아들 다윗입니다. 불품없고 보잘것없는 막내(카탄)입니다.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자식, 없는 자식으로 생각하고 싶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막내를 보신 하나님은 즉각 말씀하십니다. “제 후!(이가 그다!, 이 아이가 그 아이다!)” 다윗이야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용모가 준수한(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외모와 능력 중심의 세상적 눈이 자녀들을 병들게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단절됩니다. **사랑이 단절되면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이 결핍됩니다. 마음과 몸이 병듭니다.** 능력은 신실한 사랑과 신뢰에서 오지, 맹목적인 조련이나 훈련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못나서 숨기고 싶은 자녀라도 하나님은 ‘이 이이가 그 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무작정 ‘쫓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시각,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해낸 것만 칭찬하지 않고 무엇이든 열심히 해온 걸 칭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가정에 믿음과 건강과 기쁨과 행복이 쌓입니다.

#### 2. 적용

내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기대하실까요?

#### 3. 함께 기도해요

가정의 주인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세상이 요구하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선물임에 늘 감사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때로는 너의 앞에

(원제 : 축복송)

송정미

1. 때-로는 너의 앞 에 어려 움과 아픔있거 만  
 2. 너는 태 한 족속이 요 왕갈 운 - 제사장이 며

담대하 게 - 주를 바 라 보는 너 의 영혼 -  
 기록한 나 라 하나 님 의 소유 된 백 - 성 -

너의 영 혼 우리 볼 때 영 마 나 아 름다 운 - 거  
 너의 영 혼 우리 볼 때 영 마 나 사 랑스 러운 거

너의 영 혼 통 해 큰 영 광 반 으 실

하나 님 을 찬 양 오 할 켈 루 야

Copyright (C) 1988 송정미 . Adm. By 1

### (통일 305)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559

가정

어호라를 경외하여 그의 재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후손에게 복이 있으리요다

진영백(1894-1968)

(시 112:1-2)

임마누엘 가창: 10.10.10.REF.

구두리, 1967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 고 하나님 아버지 모 션으 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 고 동기들 사랑에 몽 쳐잇 고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 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 가

믿음 의 반석도 든든하 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 라  
 기쁨 과 설움도 같이하 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라  
 한상 에 둘러서 먹고마 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라

후렴  
 고마워 라 임마누 엘 예 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라 임마누 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 루

쉬운 기타코드(capo=1st) D<sup>b</sup>→C A<sup>b</sup>→G E<sup>b</sup>7→D7 G<sup>b</sup>→F